

서호인의 '소설처럼'



다른 세상을 꿈꾸는 디스토피아 - 조남주 '사하맨션'

'휴거'라는 말이 있다. 옛말로 주공아파트라 할 수 있는 도시주택공사의 아파트 브랜드 '휴먼시아'와 실제로 그러한 처지의 사람은 현재에는 많이 없지만 가난에 대한 멸칭인 '거지'의 합성어라 한다.

할 수 없다. 어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옆에 특수학교가 건립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한다. 그렇다.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를 따지며 친구를 사귀고, 임대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 것의 의미를 약삭빠르게 알아차리도록 한 것은 바로 우리이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로 보인다. 소설의 설정은 다소 SF적 기질이 있다. 그러나 시대와 공간, 모티브와 플롯이 모두 유행해 온 소설은 우리의 삶 자체로 무섭도록 유탕해 온다. 조남주 작가는 페미니즘에 입각한 지난 작품에 이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요구되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질문을 파지 않고 '사하맨션'에 담는다.

'진경'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 틀렸어. (……) 그리고 나는 우미와 도경이와 끝까지 같이 살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이들은 '자이니 레미안'이니 '힐스테이트'니 하는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네이밍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임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독하게도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젠더 불평등을 본격적 논의의 수면으로 끌어올린 작가 조남주가 신작 '사하맨션'으로 돌아왔다. 여성 혐오, 경력 단절, 유리천장이 우리의 현실이었듯이 '사하맨션'의 모티브 또한 우리의 지극한 현실이다.

부지는 점점 부가 쌓이고 빈민은 더욱 궁궁하게 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자본주의의 편향적 팽창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정권이 바뀔라고 모든 일이 해결될 수는 없다. 투표로 인한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시인)

의료칼럼

옥천연가(玉泉戀歌)-침(타액) 이야기



안수기 그린이양병원 대표원장·한의학 박사

오늘은 모처럼 그녀들과 데이트이다. 한정식은 역시 광주이다. 진수선천이다. 연과 타가 미소를 보내며 나타난다.

이 예민하다. 그녀들이 먼저 맛보고 소화 기관 전부가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한다.

행운이다. 눈부신 여인들과의 데이트! 만일 그녀들이 없었다면 이번 진수선천도 모래 밭을 삼키듯이 힘들었을 것이다. 설사 삼켰다 하더라도 식도를 따라 음식들이 위에 도달하는데 무려 15초를 허비하고 만다.

일본 한 대학의 연구다. 놀랄게도 발암 물질을 그녀들이 섞어 놓으면 30분 후에는 발암 물질의 독성이 80% 이상 사라진다는 놀라운 결과다.

밀에 옥천을 삼켰는데 이를 태식(胎息)이라 하여 수련의 한 방법으로 삼아서 무병장수하였다.

선현들의 건강법에 대한 충고는 하나 같이 그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한다. 늘 입안에 가득 채워 천천히 삼키라는 것이다.

기고

여성 일자리 창출 위해 콜센터 인력 지원을



정기주 전남대 교수·한국콜센터산업협회장

광주 지역에서 콜센터 산업은 약 60개 센터에서 7500여 명이 달하는 여성 상담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효력 산업이다.

모집하고 있으나, 인력 수급의 지역적 범위를 전남과 전북까지 넓히면 대학 숫자는 25개, 실업계 고등학교 숫자는 50여 개로 증가한다.

하지만, 수도권 콜센터 업체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보다도 더 원하는 요소는 안정적인 콜센터 인력 지원이다.

둘째,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학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으며 취업 기회 제공에 따른 임대료가 저렴한 대학 및 실업계 고교 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소위 '캠퍼스형 콜센터'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상담 인력 소싱 범위를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까지 호남권 전제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상담 인력 교육 과목에, 전통적인 상담 기술 교육 외에 AI 상담 기술에 대한 교육도 추가 진행하여 AI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고객센터 상담 인력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社說

새 역사 쓴 한국 축구 이제 우승이 보인다

말 그대로 '감동의 드라마'였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태극 전사들의 활약에 국민들도 새벽잠을 마다하고 선수들과 하나가 되어 응원했다.

코 U-20 월드컵과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일곱 년 4강 신화를 뛰어넘는 쾌거다.

'한국 축구의 미래'인 U-20 대표팀이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에서 에콰도르를 1-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젊은 태극 전사들의 조직력과 공격력, 패기와 투혼이 갈수록 업그레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라고 모든 일이 해결될 수는 없다. 투표로 인한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극 전사들은 16일 오전 1시 우크라이나와 U-20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이로써 대표팀은 U-20 월드컵에서 역대 첫 결승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결승전에서도 역대 첫 우승이라는 신화를 창조해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선사하기를 기대한다.

동부권청사 순천 확정 더 이상 갈등 없도록

순천시 신대지구가 전남도청 동부권 통합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과 분열을 초래했다. 여수와 광양시는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یار움지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때 대표팀은 U-20 월드컵에서 역대 첫 결승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전남도는 도내 시·군이 제안한 지역 성장 전략사업 네 개를 매년 선정해 100억 원씩 매년 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어제 발표했다.

無等鼓

호남 최초로 비행기를 몰고 광주·나주·목포·강진·장흥 상공을 날았던(1924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는 장흥 출신 이상태(李尙泰)다.

주 세 차례 경성까지 민간인을 태운 비행기가 오갔다.

여기에 일본 해군항공대 소속 훈련비행대가 주둔하면서 민간공항공과 군공항공의 동거가 시작됐다.

광주공항 단상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3월의 일이다.

해 광주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한 것은 1966년 7월의 일이다.

2021년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footer with the slogan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